

/지역 단신/

광산 저소득층 산모에 도우미 서비스

앞으로 저소득층 산모가 둘째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광산구는 23일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연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우미는 파견기간 동안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식사준비와 신생아 목욕 청소와 세탁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파견 요청 제출서류는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1부를 준비해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 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보건소 건강증진팀이나 모자보건실(☎940-8462,8544)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

고창, 일광 기념관에 '항일역사도서관'

사단법인 순국선열 일광 정시회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라홍찬)는 순국 100주기 기념사업으로 고창읍 일광 기념관 2층에 항일역사도서관을 개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을 가을 개관 예정인 항일역사도서관은 현재 유물 전시 위주로 되어있는 기념관에 선열들의 항일역사를 기록한 서적과 관계자료를 수집해 역사교과서와 독서지도사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념사업회 라홍찬 회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민간차원의 항일역사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환기자 jwkim@

셀레늄 딸기·토마토 고소득 견인

담양 죽녹원 작목반, 셀레늄 이용 친환경 재배 일반가격보다 30~40% 더 받고 대도시에도 팔려

담양의 한 작목반원들이 가능성 물질인 셀레늄(Se)을 활용한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은 23일 "담양읍 가산리 죽녹원 작목반 20여농가가 3만여평에 친환경 기능성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 지난 달부터 서울 등 대도시에도 출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능성 딸기는 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셀레늄을 이용, 재배에 성공한 뒤 농가에 기술 이전했다.

죽녹원 작목반은 셀레늄을 물에 적당량 희석한 뒤 3~4차례 잎 등에 살포하고 농약 등을 전혀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

군 기술센터 확인결과 생산된 딸기와 토마토에서는 1kg당 245~302mg의 셀레늄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는 보통 딸기 등이 20~30mg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이다.

이 작목반 딸기 등은 대도시 경매사와 상인들로부터 "저장성이 좋고 맛과

당도가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가격도 일반 딸기 등에 비해 30~40% 높게 받는 등 총 소득만도 13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담양=최재희기자 jhwha@

▲셀레늄=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질리우스가 금속의 재련과정 중에 생긴 황산의 잔류물에서 발견했으며 연소할 때 푸른 빛을 발한다고 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

"우리 마을은 법 없어도 산당께!"

'도내 최장기 범죄없는 마을' 곡성읍 '동산마을' 선정 영예

"주민들이 모두가 한 가족인데 무슨 법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은 법 없이도 살아요."

광주지검이 오는 25일 '제43회 범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전남도내 '범죄없는 마을' 조사에서 '도내 최장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동산마을' 감병형(58) 이장의 설명이다.

이 마을은 3년째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 80년과 83년에도 범 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 동산마을은 35가구 50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김 이장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가족입니다. '선산(善山) 김(金)'씨 아니면 '광산(光山) 김(金)'씨가 모두입니다. 온통 한 핏줄인데 무슨 싸움이 나고 범죄가 나겠어요?"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지난 450여 년 동안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도 범 죄 없는 마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다.



지난 2003년부터 3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곡성군 곡성읍 '동산마을' 주민들. /곡성=최현배기자 choi@

'동산마을'이 범 죄 없는 마을로 소문이 나자,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으려는 마을도 생겨났다. 대평리·신리·장성리 등 주변에 있는 7개 마을에서 함께 "마을 순찰대"를 운영 하려고 제안한 것이다.

한편 '범 죄 없는 마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한 건의

범 죄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한해 동안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기소유예·공소보류·기소중지·소년부 송치·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된 형사사건이 단 한 건도 없어야 가능하다.

/이승배기자 lsb54@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 '2006 군민의 상' 수상자 4명 선정

곡성군은 최근 '2006 군민의 상' 수상자로 임채지(69·문화예술·교육부문)씨, 故 홍경안(사회복지부문)씨, 설승호(42·산업경제 부문)씨, 이명관(37·도 및 질서안보 부문)씨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임채지(짚물 공예전문가)씨는 짚물 공예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노력했고, 故 홍경안씨는 광주어망공업(주)을 설립, 남다른 애항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적을 쌓았다. 또한 설승호(전 삼기면 청년회장)씨는 우수 농산물 생산 및 판매방법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이명관(곡성경찰서 정보계장)씨는 200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와 심정취체 및 섬진강 마라톤 대회 교통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단지 확대

도농기원, 강진 친환경작 작목반 등 4곳 추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 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단지가 확대 운영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지난 2004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시범단지를 올해 강진 친환경작 작목반, 남평 유기작목반, 나주 신농법유용작목반, 곡성 심정매작목반 등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지난 해까지 장성 학사농장, 광양 함울작목반 등 6개단지에서 생산이력제가 시범운영되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생산이력제란 농산물의 산지와 품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구매된 소비자가 상품에 붙어있는 농산물이력관리번호로 농산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한 후 구매토록하는 제도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종류의 농산물



은 상품별로 원산지는 물론 생산자와 파종, 약제 살포방법 및 필수 등 재배과정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경쟁력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서귀주 경영정보 연구담당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와 생산이력제 시범단지를 활성화시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영화안내 (Movie listings with Happy Time logo)

메가박스 (Megabox listings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

엔터시네마 (Entertainment Cinema listings)

주차가 편리한 극장 (Convenient parking theaters listing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s)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Columbus Cinema Hanam branch listings)

엘지공인중개사 (LGI Real Estate listings)

유성공인중개사 (Yuseong Real Estate listings)

LCE타워(주) (LCE Tower Real Estate listings)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listings)

21세기부동산개발(주) (21st Century Real Estate Development listings)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Real Estate listings)